

# 보스턴 미술관 소장 고려 치성광여래강림도의 도상 고찰

정진희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 불교미술사 전공

jini5448@hanmail.net

I. 머리말

II. 고려 치성광여래강림도의 도상 구성

III. 고려 치성광여래강림도 도상의 전래와 특징

IV. 맷음말

## I. 머리말

치성광여래는 밤하늘의 북극성을 의미하는 부처로 중국 전통 북극성신 양과 인도 점성신양인 구요(九曜)신양이 혼합된 치성광여래신양의 주존 불이다. 8세기 후반에서 9세기 전반에 생성된 이 신양은 동북아시아의 대표적 성수(星宿)신양으로 자리매김하며 시대를 따라 변천하였는데 도상도 그에 따라 중국, 일본, 한국의 것이 각각 서로 다른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치성광여래신양이 전래된 시기는 9세기 후반에서 10세기 전반으로 치성광여래도상도 이때 함께 전래되었을 것으로 추측한다. 치성광여래신양은 그 원류를 점성신양에 두기 때문에 도상에도 점성에 필요한 구요와 십이궁, 이십팔수가 주요 구성요소이다.<sup>1)</sup> 미국 보스턴 미술관에 소장된 고려 치성광여래강림도에는 주요 구성요소 이외에도 북두칠성을 비롯하여 남두육성, 삼태육성 등 고려에서 신양하였던 모든 성수가 함께 그려져 있다. 이는 중국 치성광여래도상의 구성과는 다른 지역적인 특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 그림처럼 영험한 별들이 한 화면에 모두 그려진 작품은 현존하는 동아시아 불교도상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다.

기존 치성광여래에 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첫째는 중국 치성광여래도상의 구성요소와 형식에 관련된 것이고, 둘째는 고려와 조선 초기 치성광여래도상 분석과 조선 후기 칠성불화의 주존으로 그려진 치성광여래에 관련된 연구들이다.<sup>2)</sup> 이들 논문에서 치성광여래도상의 연원에 관한 연구는 시도된 바가 없으며 중국, 일본과 차이를 보이는 한국 치성광여래도의 특성에 대한 고찰도 없었다. 이에 필자는 우리나라 치성광여래도상의 특징을 고찰하기 위하여 먼저 인도의 구요, 중국의 치성광여래신양과 도상을 살펴보고 이어 고려의 치성광여래신양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sup>3)</sup>

1) 정진희, 「중국 치성광여래 도상고찰 II-도상의 성립과 시대적 변천에 관하여」, 『불교 학보』 제63집(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2012b. 12), 385~386쪽. 점성술에서는 불박 이 별인 12궁·이십팔수와 행성인 구요의 위치관계로 점괘를 뽑는다.

2) 치성광여래 도상 연구 목록은 정진희, 「고려 치성광여래 신양 고찰」, 『정신문화연구』 제132집(한국학중앙연구원, 2013. 9), 314~315쪽 참조.

3) 정진희, 「중국 불교의 九曜圖像 연구」, 『CHINA연구』 제8집(부산대학교 중국연구소,

이 글은 필자의 앞선 연구의 일환으로 미국 보스턴 미술관에 소장 중인 고려 치성광여래강림도를 통해 고려 치성광여래도상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고려시대 치성광여래 작품과 기록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연구에 어려움이 있지만 앞선 치성광여래신앙과 도상에 관한 연구를 참조하여 중국의 모티프를 수용하여 선택적으로 변용시켜 만들어 낸 고려 치성광여래도상이 갖는 특징과 독창성을 해석해보고자 한다.

## II. 고려 치성광여래강림도의 도상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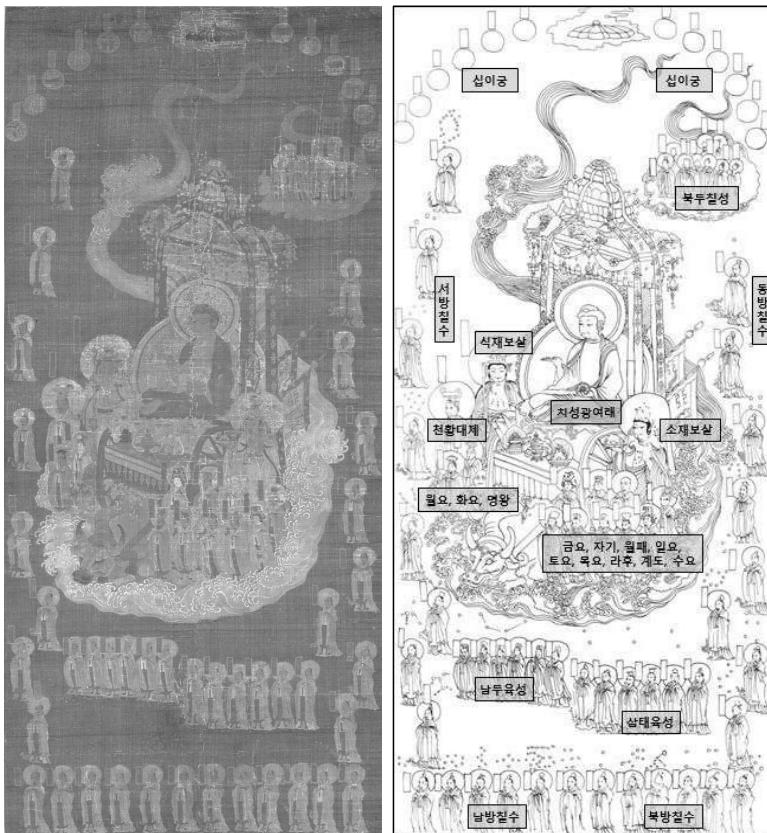
보스턴 미술관에 소장된 치성광여래강림도는 현재 유일한 고려시대 치성광여래도로 화면에 도상의 존명을 표시한 방기(傍記)가 있다(도1). 치성광여래의 불의(佛依)문양과 화면에 그려진 운문(雲紋), 연화대좌 내부의 표현 등이 13세기 후반과 14세기 초 고려불화와 유사성을 보이고 있어 제작연대는 14세기 초반을 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sup>4)</sup>

화면 중앙에는 대각선의 구도를 이루며 소가 끄는 우차(牛車) 연화대좌 위 결가부좌로 앉은 치성광여래와 함께 협시보살, 천황대제(天皇大帝), 십일요(十一曜), 명왕(明王)으로 이루어진 권속이 구름을 타고 천상에서 강림하는 형상이 그려져 있다.<sup>5)</sup> 화면의 최상단에는 보개(寶蓋)를 중심으로 양측에 각각 6개의 원문 속에 그려진 12궁이 있다. 그리고 그 바로 아래 여래 우측 상방 치성광여래의 무리를 따르는 구름 위의 소형 인물들

2010. 2); 정진희, 「중국 치성광여래 도상고찰 I-신앙의 성립과 전개에 관하여」, 『인문학연구』 13집 1호(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2a. 6); 정진희, 앞의 논문(2012b); 정진희, 앞의 논문(2013. 9).

4) 김일권, 「고려 치성광불화의 도상 분석과 도불교섭적 천문사상연구 -고려전본 〈치성광여래왕림도〉와 선조 2년작 〈치성광불제성강림도〉를 중심으로-」, 『천태학연구』(원각불교사상연구원, 2003), 361-365쪽. 고려 치성광여래강림도에 그려진 이십팔수 형상과 동일한 1325년 6월에 완성된 영락궁 조원도의 이십팔수 형상은 1119년에 御製된 『九星二十八宿朝元冠服圖』의 도상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도1의 제작 상한 시기를 12세기 중반, 하한 시기를 14세기 초반으로 보고 있다.

5) 정진희, 앞의 논문(2012b), 381쪽. 치성광여래도상은 크게 치성광여래의 대좌형식에 따라 降臨形과 說法會形으로 나눌 수 있다. 치성광여래와 구요(십일요), 12궁, 이십팔수와 같은 구성요소는 동일하지만 강림형식에서는 牛車에 앉은 치성광여래와 함께 諸曜星宿가 地上으로 강림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고, 설법회형식은 연화대좌에 앉은 치성광여래가 淨居天에서 성중들에게 설법하는 燥盛光會上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도1-〈치성광여래강림도〉와 세부 명칭,

124.4×54.8cm, 14세기 초,

보스턴 미술관, 도면 작성: 김유나

은 북두칠성과 보성(輔星), 필성(畢星)을 나타낸 것이다. 화면 좌우 가장자리와 하단에는 이십팔수가 있는데 본존 좌측에 동방칠수, 우측에 서방칠수, 좌하단에는 남방칠수와 북방칠수가 배치되었다. 여래의 무리 아래에는 공간감을 느낄 수 있게 높이를 달리하여 남斗육성(南斗六星)과 삼태육성(三台六星)을 배치하였다. 중앙권속을 제외한 나머지 인물들은 모두 별자리와 함께 그려져 이들이 밤하늘의 성수를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앙 권속의 구성은 중앙 치성광여래를 중심으로 좌우에 서 있는 식재보살(息災菩薩)과 소재보살(消災菩薩), 그리고 우차 좌우의 십일요와 천왕대제, 명왕으로 되어 있다. 세부의 형태를 보면 우차 위 연화대좌에 앉은 치성광여래는 결가부좌한 다리 위로 올린 왼손에 금륜(金輪)을

가지고 오른손은 들어 진행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sup>6)</sup> 두광과 신팡의 둘레에는 붉은 치성광염(熾盛光焰)이 타오르고 있다.<sup>7)</sup>

치성광여래 좌우의 보살은 소재보살과 식재보살이다. 본존 우측 정면을 바라보고 서 있는 식재보살은 오른손에 손잡이가 여의두문(如意頭紋)으로 장식된 불꽃이 휘감고 있는 검을 쥐고 있다. 본존 좌측 소재보살은 수레가 나아가는 방향으로 시선을 두고 오른손으로 보반(寶盤)을 받들고 서 있다. 식재보살 바로 아래 일월로 장식된 면류관을 쓰고 홀을 가진 인물은 천황대제이다.

수레 좌우에 서 있는 소형 인물상들은 일·월·화·수·목·금·토요와 음요(陰曜)인 나후(羅候)·계도(計都)·월패(月孛)·자기(紫炁)로 구성된 십일요이다.<sup>8)</sup> 『범천화라구요(梵天火羅九曜)』, 『칠요양재결(七曜攘災訣)』에서 구요는 상징적인 동물로 장식된 관을 쓰고 특정적인 지물을 가지는데, 이 그림의 십일요는 동물장식관은 착용하였지만 모두 소매가 넓은 대수포(大袖袍)를 입고 지물로 모두 홀판(笏板)을 쥐고 있는 경상형(卿相形)이다.<sup>9)</sup> 십일요 가운데 여성형으로 묘사된 수요와 금요는 거두미형(巨頭味形)의 관을 쓰고 있고, 월패는 피발형(被髮形) 머리 모양을 하고 있다.<sup>10)</sup> 수레 좌측 바퀴 바로 옆 기면 형상의 인물은 뾰족한 아랫니와

6) 『大聖妙吉祥菩薩說除災教令法輪』에 의하면 치성광여래의 수인은 석가의 것과 유사하다고 하였다. 도1의 치성광여래 오른손 수인 형태는 원대 이후 강립형식에서 보이는 것으로, 원대 이전의 작품에서는 시무의인의 형태에서 약자와 중지를 구부린 모습으로 금륜을 돌리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도7 참조).

7) 치성광여래는 毛孔으로부터 熾盛光焰을 뿜어내고 있어 불어진 이름이다. 佛書刊行會編纂, 「熾盛光本」, 『大日本佛教全書』, 東京: 名著普及會, 1978. 참조. 치성광여래는 毛孔으로부터 熾盛光焰을 뿜어내고 있어 불여진 이름이다.

8) 錢衛星, 「唐宋之際道教十一曜星神崇拜的起源和流行」, 『世界宗教研究』(科學史與科學文化研究院, 2012, 1기). 정진희, 앞의 논문(2010), 69-77쪽. 십일요가 대중의 호응을 얻으며 신앙으로 발전한 것은 10세기 말에서 11세기 초이다. 자기와 월패는 나후와 계도의 개념을 발전시켜 만들어낸 중국적인 隱曜로 불교보다는 도교적인 색채가 더짙은 성수신앙이다. 일본의 성만다라에서는 십일요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구요만 나타난다.

9) 정진희, 앞의 논문(2010), 79-80쪽. 십일요의 관식(지물)은 日(日球)·月(月球)·火(驢/무기)·水(猴/紙筆)·木(猪/화반)·金(鶴/비파)·土(牛/지팡이, 향로, 경합), 羅候(怪面武將/무기)·計都(怪面武將/무기)·月孛(피발형, 武將形/칼과 자른 旱魃의 머리)·紫炁(경상형/홀판)이다.

10) 임수빈·김성남, 「불화로 살펴본 조선시대 거두미의 시원에 관한 고찰」, 『한국미용예술학회지』 Vol. 7, No. 3 통권 20호(한국미용예술학회, 2013), 134-138 쪽. 假髻의 일종인 거두미는 상류층 여인들의 머리형태로 왕비나 궁중 여인들이 주로 사용하였다. 중국에서는 이와 같은 두발형상을 雙環望仙髻라 하여 신선사상을 접목시키고 있다. 피발형의 월패는 서하 치성광여래설법도에 나타나고 있어 서하와 고려 불화도상의

검과 견삭(羈索)을 들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부동명왕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중앙 권속 아래 일렬로 서 있는 경상형의 남두육성과 삼태육성, 그리고 화면 좌우와 하단의 이십팔수는 모두 별자리와 함께 그려졌다.<sup>11)</sup> 이십팔수의 발치에는 신수(神獸)가 있는데 신수와 조합을 이룬 이십팔수는 원대 택주 옥황묘와 영락궁 조원도에서도 그 예를 찾을 수 있어 도교의 이십팔수신상인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전거는 『원사(元史)·여복지(輿服志)』 의장조(儀仗條)이다.<sup>12)</sup> 구름을 타고 강림하는 괴발형의 북두칠성은 성현의 『용재총화』에 “태일전에서 칠성과 제숙을 제사지내는데, 그 상은 모두 머리를 풀어헤친 여자 모양이었다”는 내용과 부합되는 것으로 경상형으로 그려진 보성·필성과 함께 북두구진(北斗九辰)으로 구성되어 있다.<sup>13)</sup> 화면 상부 좌측에서 보병궁으로 시작하는 십이궁은 서양의 별자리를 나타내는 것으로, 치성광여래강림도에서 동심원 구도를 이루며 화면 중심에 배치되던 12궁이 화면 상부로 자리를 옮기는 것은 12세기 서하의 설법회형식의 작품에서부터 그 예가 보이기 시작한다.<sup>14)</sup>

### III. 고려 치성광여래강림도 도상의 전래와 특징

#### 1. 치성광여래도상의 전래

보스턴 미술관 소장 치성광여래강림도는 재앙을 없애고 소원을 이루어 주길 바라며 밤하늘의 별에 기원하는 치성광여래신앙을 표현한 작품이다. 치성광여래신앙의 원류는 별의 움직임에 따라 운명을 점치는 인도의 구요신앙으로 동남아시아와 멀리 남아메리카까지 널리 전파된 점성신앙

---

대외교류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11) “北斗와 南斗”, “北斗와 三台”는 각각의 결합관계를 지니면서 인간의 生死禍福을 주관한 가장 유명한 천문성수들로 북두칠성은 인간의 死後를, 남두육성은 인간의 壽命과 長壽를, 그리고 三台星은 인간의 탄생과 혼백을 보존하는 수호성신들이다.

12) 김일권, 앞의 논문, 362~364쪽.

13) 성현, 『용재총화』 2권. “대개 昭格署는 중국 道家의 행사를 모방하여 太一殿에서 七星과 諸宿을 제사지내는데, 그 像은 모두 머리를 풀어헤친 여자 모양이었다”(한국고전 DB).

14) 도1의 12궁 명칭과 구성에 관하여서는 김일권, 앞의 논문, 347~358쪽 참조.

이다. 이들 지역에서 구요는 독자적인 신앙체계를 보이며 발전해나가지만 중국에서는 북극성을 여래화하여 나타난 치성광여래라는 부처와 결합되는 특징을 보인다.<sup>15)</sup>

9세기 후반에서 10세기 전반 바다 건너 도래한 새로운 성수신앙이었던 치성광여래신앙은 초기에는 고려 민중의 호응을 크게 얻지 못하였다.<sup>16)</sup> 이후 소재도량, 구요초제 등 치성광여래신앙 관련 의례들이 11세기 중반 이후 활발히 거행되었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신앙의 전개는 이 시기 전후로 보이며, 치성광여래도상의 전개도 신앙과 유사한 과정을 보였을 것이다. 도상 전래 당시의 현존 작품은 없지만 기록을 통해 고려 치성광여래도상의 흔적을 엿볼 수 있는데, 『고려사』의 「작제건 기사」(자료 ①)와 「발삽사의 진성소상 기사」(자료 ②)는 고려에 강림형식과 설법회형식 두 종류의 치성광여래도상이 전래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자료 ① “…… 활을 잘 쏘는 작제건은 김량정을 따라 당으로 가는 도중 서해의 용왕으로부터 “늙은 여우가 치성광여래의 형상으로 둔갑하여 공중으로부터 내려와 일월성신을 운무 사이에 늘어놓고 소리나팔을 불고 북을 쳐가며 요란하게 웅종경(擁腫經)을 읽으면 머리가 아프니 그 여우를 활로 쏘아 나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 때가 되어 공중에서 풍악 소리가 들리더니 과연 서북쪽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자가 있기에 활을 들고 화살을 먹여서 겨누어 쏘니 활시위 소리와 함께 떨어지는 것은 과연 늙은 여우였다.”

자료 ② “정명 4년 무인(918)년 3월에 당나라 상인 왕창근이 어느 날 우연히 저자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헌칠한 용모에 수염과 두발이 희고 머리에는 낡은 관을 썼으며 거사의 복색으로 원손에는 바리 3개를, 오른손에는 사방 1자쯤 되는 낡은 거울 하나를 들고 있었다. [...] 동주 발삽사의 치성광여래상 앞에 전성고상(토요)이 있었는데 그 모습이 거울 주인과 같고 양손에 바리와 거울을 들고 있었다.”<sup>17)</sup>

①에 보이는 “공중으로부터 내려와 일월성신을 운무 사이에 늘어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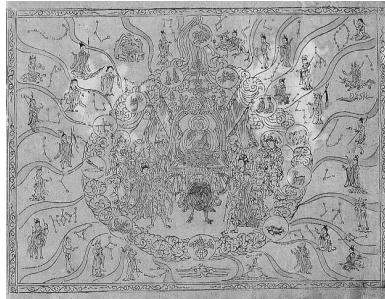
15) 정진희, 앞의 논문(2012a), 225-229쪽; 정진희, 앞의 논문(2012b), 375쪽. 9세기 중후반 까지는 오성(화수목금토)과 치성광여래가 그려진 도상이 유행하였고 구요와 치성광여래가 조합을 이룬 도상은 10세기 전반부터 그 예가 나타나고 있다.

16) 최성은, 「나말려초 중부지역 석불조각에 대한 고찰 -궁예 태봉(901-918) 지역 미술에 대한 시고」, 『역사와 현실』 제44호(한국역사연구회, 2002. 6), 34쪽. 자료 ①의 여우가 변한 치성광여래의 묘사는 치성광여래 신앙이 전래 초기 민중의 호응을 받지는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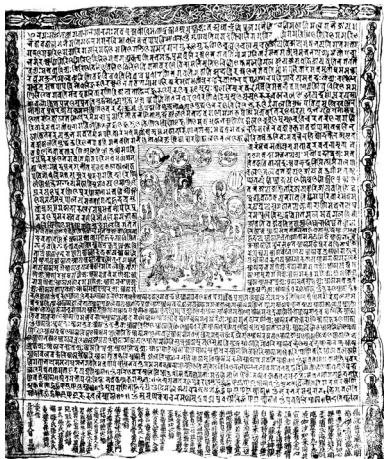
17) 자료 ①『高麗史』, 「序文」. 자료 ②『高麗史』 卷1 「世家」, 「태조총서」. 같은 내용을 『삼국사기』에는 填星을 鎮星으로, 三隻橈을 三隻橈으로 기록하고 있다(『삼국사기』 卷第五十 「列傳」 第十, 弓裔)(한국사DB).



도2-〈치성광불병오성도〉, 견본채색,  
55.4×80.4cm, 당(897), 대영박물관장



도3-〈치성광불정대위덕소재길상타라니경〉,  
변상판화, 북송(972), 일본 나라 상지방  
소장



도4-〈대수구다라니〉, 21.5×25.0cm,  
송(1005), 소주 서광시탑



도5-〈치성광불병구요〉, 전촉(922),  
80.0×80.0×25.0cm, 대족석굴 39호

고……”라는 대목은 치성광여래와 권속들이 운무를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강림형식의 도상과 유사하다(도2). 9세기 중후반 중국에는 치성광여래와 오성신이 함께 그려진 작은 그림이나 부적 등을 집 안에 두고 복을 비는 신앙이 유행하였고, 중국과 한반도를 오갔던 해상교역 상인들은 북극성신에게 바닷길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신앙을 믿고 있었다.<sup>18)</sup> 따라서 강림형식 도상이 부적과 다라니, 경변상 등을 통해 한반도로

전래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도3, 도4).<sup>19)</sup>

『삼국사기』, 『전당시』, 『고려사절요』에도 보이는 자료 ②를 보면 10세기 초 철원의 발삽사에는 치성광여래와 토요상이 있었다.<sup>20)</sup> 중국 치성광여래도상에서 조각 작품은 설법회형식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발삽사에 있던 치성광여래와 구요도 설법회형식이었을 것이다. 자료 ②와 비슷한 시기인 922년에 조성된 중국 대족석굴 치성광여래 불감은 발삽사의 치성광여래와 구요의 모습을 상상하는 데 참고가 된다(도5). 대족 39호 석굴의 치성광여래는 불감 중앙 연화대좌 위에 결가부좌로 앉아 선정인을 한 손 위에 금륜을 올리고 있다. 치성광여래 좌우에 배치된 구요는 바라문 승려 형태를 하고 있는 토요를 비롯하여 지필을 가진 수요와 비파를 든 금요와 같이 그 형상의 특징을 표현하였다. 이와 같은 구요의 모습은 『범천화라구요』의 내용과 유사성을 보이는 것으로 구요 형상의 시대적 변천에서 10세기 초반의 특징에도 부합되는 것이다.<sup>21)</sup>

18) 廖陽, 「熾盛光佛构圖中星曜的演變」, 『문화연구』 No. 4(문화연구원, 2004), 72쪽. 光啓年間(885~888) 靈州 廣福寺의 승려 無跡은 치성광불정의 소재법을 전수받아 도량을

건설하고 부사 한공의 소재길상을 위하여 기도를 하고 있어 당시 승려들에 의해 치성광 법식이 사찰에서 행해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민간에는 佛像과 五星이 함께 그려진 그림을 가지고 있으면 재앙을 피할 수 있다고 믿고 그것을 집에 소장하는 것이 유행하였다. 그리고 그와 같은 행동을 공덕을 쌓는 佛事로 혼동하고 있었다. (정진희, 앞의 논문, 2013, 321~323쪽). 해상무역 상인들은 불교의 묘견보살, 도교의 현천상제 등 북극성신과 관련된 신에게 海路의 안녕을 비는 풍습이 있어 치성광여래 신앙은 중국과 한반도를 오가던 求法僧과 貿易商, 使節團 등에 의해 고려로 전래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19) 최성은, 「高麗時代 護持佛 摩利支天像에 대한 고찰」, 『佛教研究』 29호(한국불교연구원, 2008), 301~305쪽; 김일권, 『고구려별자리와 신화』(사계절, 2008), 19쪽. 개인용도의 작은 호지불 등이 순례자나 여행자의 행장을 통해 전래되었듯이 소재신앙의 방편으로 제작된 치성광여래도상도 부적이나 다라니 등을 통해 중국에서 고려로 전래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십팔수와 12궁의 경우 그와 관련된 내용이 자료 ①과 자료 ②에서 보이지 않고 조각 작품에서는 이들을 생략한 경우도 있어 단정 지어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고려에 12궁법이 전래되었다는 984년 요나라 기록과 12궁 이십팔수가 중요한 구성요소로 도1에 그려졌기 때문에 12궁 이십팔수가 그려진 작품이 고려에 전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20) 924년 왕건이 구요당을 세웠다는 내용과 십일요 천각에 소조상이 있었다는 사실 등에서 고려의 구요상의 조성은 확인되고 있다.

21) 정진희, 앞의 논문(2010), 71쪽.



## 도6-〈제신살방위도〉, 8세기, 토노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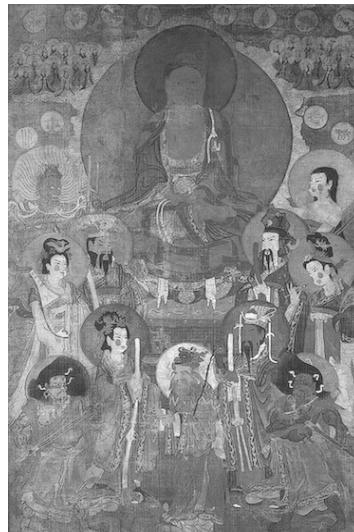


도7-〈치성광불제요성수도〉, 서하, 벽화,  
710.0×335.0cm. 돈황 61글 남측

## 2. 고려 치성광여래강림도상의 특징

### 1) 구도

치성광여래도상에서 도1과 같이  
이십팔수와 12궁이 화면 가장자리에  
그려진 구도는 점성에서 사용되던 방  
위도에 원류를 두는 것으로, 설법회  
형식에는 그 예가 드물고 강림형식  
에서도 12세기 이전의 작품에만 나타  
나는 도상 배치 방식이다(도6).<sup>22)</sup> 중  
국에서는 12세기 중후반이 되면 십이  
궁은 점차 도상에서 사라지고 이십팔  
수는 구름 위 소형의 인물군상으로  
화면 상부에 위치하는 작품이 나타나  
기 시작한다(도7, 도8, 도9).<sup>23)</sup>



도8-〈치성광불제요도〉, 66.0×102.0cm,  
서하, 에르미타주 미술관 소장

22) 정진희, 앞의 논문(2012b), 385-386쪽.

23) 武田和昭,『星曼茶羅の研究』(法藏館, 2005) 11쪽; 蘇佳瑩, 「日本における熾盛光佛圖像の考察」, 『美術史論集』11(2011. 2), 114쪽. 玄証이 그런 〈당본복두만다라〉는 대장계 만다라형식을 보이는 일본의 복두만다라와는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송에서 전래된 화본을 모사한 것이다. 소가형은 이 그림에 보이는 라후와 계도의 형상이 중국에는 없기 때문에 중국 전래품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요대 불공사 석가탑에서 출토된 치성광여래불회도에 소를 탄 多臂의 라후가 있고 용을 밟고 서 있는 도3의 계도 역시 이 그림의 계도와 유사한 도상을 보이기 때문에 이 작품은 중국의 치성광여래강립도를 보고 모사한 것으로 사료된다.



도9-〈당본북두만다라〉

지본, 구안 4년(1148),  
111.5×51.5cm,  
동경예술대

도10-〈북두만다라〉,

건본착색, 14세기 초,  
120.2×62.1cm, 대관  
고창사보적원

그리고 14세기 제작된 일본의 치성광여래강림도에는 화면 중앙에 우차 대좌를 탄 치성광여래와 오성이 있고 화면 상부에 칠성과 묘견보살, 일요와 월요 등 천상의 모습을, 화면 하부에 염미천(閻魔天)과 태산부군(泰山府君), 오도대신(五道大神), 사명(司命) · 사록(司錄) 등 지옥의 모습을 그려 넣어 치성광여래신앙과 명부신앙이 함께하는 독특한 도상 구성을 보이고 있다(도10).<sup>25)</sup> 따라서 중국과 일본의 작품과 비교하였을 때 고려

24) 김일권, 앞의 책(2008), 132쪽. 이십팔수는 천상의 방위를 결정짓는 주요한 요소로서 고구려 한중일 유물자료 중 이십팔수의 이름이 적힌 천문도는 덕화리 2호분이 가장 앞서고, 사신도와 이십팔수를 결합한 도상 역시 이 고분이 처음이다.

25) 武田和昭, 앞의 책, 86쪽, 105쪽; 有賀 匠, 「星曼茶羅と妙見菩薩の圖像学的研究」, 『密教文化』 204(密教研究会, 2004), 28-29쪽. 일본에서 치성광여래와 五星의 강림하는 모습은 이 작품에만 보이는 것으로 중국과 한국의 치성광강림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고찰된다. 일본에서 북극성 북두칠성, 구요성 십이궁, 이십팔수 등의 星宿神을 중심으로 그려진 그림을 星曼茶羅라고 하는데, 중앙 본존을 중심으로 동심원을 이루며 권속들을 배치하는 태장계만다라 형식이다. 9세기 중기 앤닌에 의해 일본으로 전래된 치성광법식은 태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에 대응하여 東密에서는 10세기 중기 북두칠성신앙이 혼합된 北斗法이 시행되었다. 따라서 북두법에 사용된 북두만다라에는 북두칠성이 등장한다. 일본의 성만다라는 本尊의 종류에 따라 北斗曼茶羅, 終南山曼茶羅, 妙見曼茶羅, 煥盛光佛降臨圖 등으로 분류되는데 일본 성만다라에는 월폐와 자기가 더해진 십일요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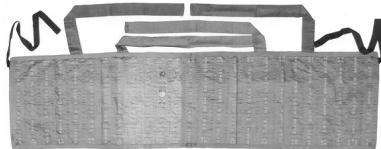
치성광여래강림도의 구도는 전통을 따르는 고식의 틀 속에서 별들이 갖는 의미를 서술적인 표현방식으로 그려낸 훌륭한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2) 구성요소

### (1) 협시보살



도1-1-〈치성광여래삼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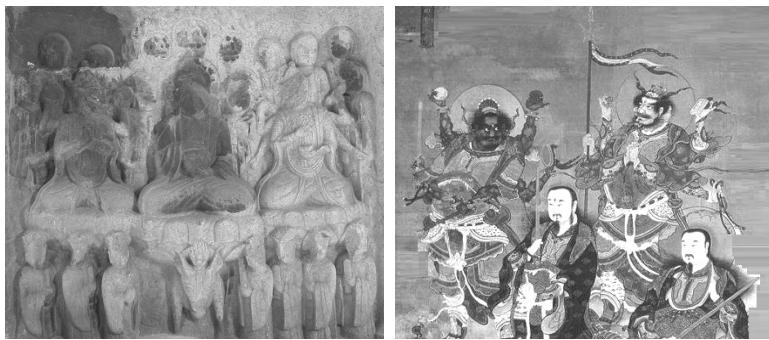


도11-〈삼보명 자수가사〉, 비단자수,  
18세기, 160.0×80.0cm,  
순천 송광사 성보박물관

『불설대위덕소재길상다라니경』에 청법자로 문수보살이 등장하지만 중국의 사례에서 강림형식의 도상에 협시보살이 그려진 예는 아직 없다. 설법회형식에서도 몇 작품에만 보살이 그려지고 일본 성만다라에는 그 예가 없다.<sup>26)</sup> 그러나 우리나라의 치성광여래도상에는 협시보살이 빼지지 않고 등장한다. 치성광여래의 협시보살은 일광보살과 월광보살로 알려져 있지만 16세기 전반까지는 소재보살과 식재보살이었다(도1-1).<sup>27)</sup> 소재보살과 식재보살은 중국과 일본에서 그 예가 보이지 않는 독특한 보살명호로서 대각국사 의천(1055-1101)의 삼보명 자수가사에서

26) 정진희, 앞의 논문(2012b), 367-400쪽. 1309년 이후 원대와 명대, 청대의 산서지역 벽화로 그려진 치성광여래삼존은 일광과 월광, 관음과 문수 등의 다양한 보살이 그려져 있다. 이는 일시적·단편적인 작품에만 나타나고 있는 지역적인 양식의 영향으로 보이며 치성광여래삼존 도상이 확립된 것은 아니다.

27) 弘治年間(1488-1505) 일본 西來寺 소장 〈육불회도〉의 繼盛光會에 그려진 협시보살은 방기로 소재보살과 식재보살이라고 그 菩薩名을 밝히고 있다. 禪僧 休靜(1520-1604)이 쓴 〈雲水壇歌詞〉의 七星請에는 “日光遍照菩薩 月光遍照菩薩摩”로 협시가 기록되어 일광보살과 월광보살이 치성광여래와 삼존을 이룬 시기는 16세기 중후반경으로 추측된다.



도12-〈소재회〉, 경천사 십층석탑 3층 남면, 도13-〈천봉원수와 천유원수〉, 명대,  
67.7×58.6cm, 1348년, 삼관대제사성진군상 부분  
국립중앙박물관

11세기 후반 고려 치성광여래도상은 소재보살 및 식재보살과 짹을 이룬 치성광여래삼존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도11).<sup>28)</sup> 치성광여래삼존의 형태는 '북극성은 하나의 별이 아니라 3개의 별로 이루어진 북극삼성(北極三星)이다'라고 하는 뿐리 깊은 전통 천문사상에 근간을 두었을 가능성 이 높다.<sup>29)</sup> 따라서 고려에서는 북극삼성사상에 기초하는 동시에 기존 여래도상의 삼존형식에 맞도록 치성광삼존상을 조성하여 전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도상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주체적인 선택을 취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경천사 십층석탑의 소재회 보살상은 고려시대 치성광여래 협시보살의 형태에 다양한 시도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도12).<sup>30)</sup> 삼면육비(三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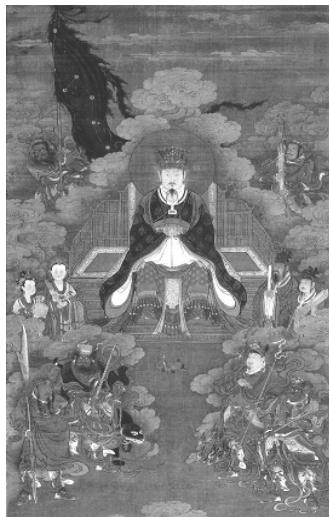
28) 제1단에는 부처님의 명호, 제2단과 제3단에는 보살의 명호, 제4단에는 불경의 명칭, 제5단에는 부처님 제자와 나한들의 명칭이 황색실로 정교하고 세밀하게 수놓아져 있다. 가사 뒷면의 墨書銘에는 “고려 13대 선종이 대각국사 의천에게 가사를 사여한다. 북송 원우 2년 정묘”라고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묵서명의 廟號는 임금이 죽은 후에 생전의 공덕을 기리어 붙인 이름이기 때문에 묵서명은 1087년 이후에 기록한 것일 수도 있다.

29) 정진희, 앞의 논문(2013), 336쪽; 김일권, 앞의 책(2008), 64쪽.

30) 원나라 황제와 황족의 祝壽를 기원하는 목적으로 만든 이 탑의 육개석 밑에는 제작연대 와 시주자들의 이름이 새겨진 발원문이 있으며, 탑신에는 佛會圖 등 불교조각이 석탑 전면에 조각되어 있다. 경천사 십층석탑에 관해서는 개괄적인 연구보고서인 『경천사 십층석탑 I·II·III』(국립문화재연구소, 2006)이 있고, 부조상에 관련된 논문은 문명대, 「경천사 10층석탑 16불회도 부조상의 연구」, 「고려 후기 전환기의 미술」(한국미술사연구소 학술대회발표집, 2003); 정은우, 「경천사지10층석탑과 삼세불회고」, 『미술사연구』 19호(미술사연구회, 2005); 신은정, 「경천사 십층석탑의 종합적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3); 신소연, 「원각사지십층석탑의 서유기 부조」,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3) 등이 있다. 문헌 기록은 정은우, 위의 논문, 241쪽 참조.

六臂) 형태의 협시보살은 다른 치성광여래도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독특한 것으로 도1의 협시보살과도 차이를 보인다. 제작의 시기적 차이가 크지 않은 두 작품에서 형태가 다른 소재와 식재보살이 조성된 이유는 조각과 회화라는 유형적 차이 때문이라기보다는 도상의 전례(前例)가 없기 때문에 생긴 혼돈 상황으로 이해된다.

중국의 예를 보면 성수도(星宿圖)에서 도불양교 상호 간 도상의 차용은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다.<sup>31)</sup> 따라서 도교에서 삼존으로 조성된 북극성신의 협시에서 도상을 차용하거나 혹은 염두에 두고 고려 치성광여래도상의 소재와 식재보살의 도상을 형상화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도교에서 북극성을 의미하는 자미대제는 천봉원수(天蓬元帥)와 천유원수(天猷元帥), 모든 별의 어머니인 두모원군은 좌보·우필성군과 짹을 이루어 삼존으로 도상이 형성되는데 이들 협시는 모두 삼면육비의 형상을 하고 경천사 소재회의 협시보살과 유사한 일·월·활과 화살·금강저·견삭 등을 지물로 가지기 때문이다(도13).<sup>32)</sup> 그리고 고려에서 신앙하였던 도교의 북극신인 진무 역시 칠성검과 칠성기를 가진 협시와 더불어 삼존으로 표현되는데, 도1-1에서 검을 가진 식재보살의 형상은 진무대제의 협시와도 유사성을 보인다(도14).<sup>33)</sup>



도14-〈진무대제〉, 견본착색,  
122.7×63.0cm, 원(14세기),  
동경 영운사장

31) 정진희, 앞의 논문(2010), 70쪽; 꽈약허, 『도화견문지』(시공아트, 2005), 281쪽. 손지미는 불교사원에서 구요를 그릴 때 세부 형태를 도가의 경전에 의거하여 그렸다.

32) 송대에 조성된 대죽 舒成岩 석굴 제3감실에는 자미대제와 더불어 다변 다비의 천봉원수와 천유원수가 삼존을 이루고 있다. 도13의 천봉과 천유의 지물은 경천사 소재회 양협시의 지물과 많은 부분이 일치한다.

33) 『海東釋史』 제26권, 〈物產志〉1, 珠편; 『동국이상국전집』 제39권, 〈진무초래문〉; 『동국이상국전집』 제41권, 〈석도소〉; 『고려사』 卷十七 「世家」 卷第十七, 桀宗 6年, 6월. (한국사DB). 고려에는 호국성신인 진무와 72성신에게 초제를 지내며 灵符의 영험함을 기원하였고 거북과 뱀이 발을 받친 상태로 의자에 앉아 灵官이 뒤에서 겹과 창을 잡고 있는 진무의 형상을 고려 국왕이 만들어 중국에 보냈다는 예가 있어 고려에는 眞武를 모시는 鎮宅靈符를 믿으며 安宅을 소원하는 신앙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도15-〈토요〉,  
『범천화라구요』



도16-〈토요〉,  
도2의 부분



도8-1-〈토요〉, 12세기,  
헤르미테이지 미술관장



도17-〈토요〉, 12세기, MOA 미술관장

## (2) 십일요와 이십팔수

자료 ②의 “수염과 두발이 희고 머리에는 낡은 관을 썼으며 거사의 복색”을 한 토요는 『범천화라구요』의 바라문 노인의 형상과는 차이가 있다(도15, 도16).<sup>34)</sup> 구요의 변천과정을 보면 9세기 중반에서 10세기

중반까지 토요상은 바라문 복장을 한 노인 형상으로 지물로 지팡이만 가진다. 따라서 918년 발삽사의 도마와 거울을 가지고 있던 거사복색의 전성소상은 토요의 시대적인 양식에 맞지 않는 것이다.<sup>35)</sup>

11세기 중반 이후 작품에서 구요는 도교 천문사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월폐와 자기가 더해진 십일요로 변화하며 복식과 지물이 경상형으로 변한 예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12세기 이후가 되면 토요는 선인(仙人)을 상징하는 우의(羽衣)를 대수포 위에 입고 있는 거사 차림의 노인 모습으로 형상이 바뀌고, 지물도 지팡이와 더불어 자루가 달린 병향로(柄香爐) 혹은 경합(經盒)을 가진 형태로 변모한다(도8-1, 도17).<sup>36)</sup> 따라서 자료 ②의 토요는 10세기 초반의 토요보다는 12세기 전반 이후 토요의 형태와 더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희령 9년(1076) 고려의 화공을 대동하고 사신으로 중국에 갔던 최사훈은 개성 홍왕사에 최백의 〈치성광여래십일요도〉가 그려진 개봉의 상국사 벽화를 모사하여 그렸다.<sup>37)</sup> 그리고 12세기 이후가 되면 개인의 소재법회 뿐만 아니라 왕실의 소재법회도 사찰에서 개설되고 사찰 전각에 소재전과 성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치성광여래도나 조각상이 당시 조성되어 있었을 것이다.<sup>38)</sup> 그러므로 중국 구요도상의 양식 변화가 고려에 수용되

34) 최성은, 앞의 논문(2002, 6), 37-39쪽. 벨삽사라는 寺名에서 발삽은 목성의 브리하스파띠를 음역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 도2의 오요의 형상 가운데 자료 ②의 내용과 유사한 것은 목요이기 때문에 진성은 토성이 아니라 목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리고 진성이라고 부른 토요는 토성이 아니라 星宿를 가리키는 일반명사였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김일くな, 『동양천문사상-하늘의 역사』, 예문서원, 2007, 352쪽). 불교적 천문사상 치성광여래는 천체의 황제이므로 토요를 천명의 전달자로 삼아 왕건의 역성혁명의 정당성과 고려 건국의 정통성을 주장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35) 정진희, 앞의 논문(2010), 69-77쪽.

36) 1119년 송 휘종이 〈九星二十八宿朝元冠服〉의 도상을 제작하여 공부하였기 때문에 12세기 전반 토요는 조원도에 보이는 경상형이 나타난다.

37) 곽야허, 앞의 책, 415쪽, 567쪽; 서궁, 『선화봉사고려도경』 제17권, 〈祠宇〉, 王城內外諸寺. 『선화봉사고려도경』 18권, 〈道敎〉; 宋史(1) 卷487, 〈外國列傳〉 第246. 상국사 벽에는 10세기 후반 高益이 그린 치성광구요도가 있었으나 1065년 수해로 피해를 입어 최백이 고의의 본을 참고로 하여 월폐와 자기가 등장하는 십일요가 그려진 치성광 여래도를 그렸다. 따라서 1076년에 십일요가 고려에 소개되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정통 도교의례가 1110년 이후에 시작되고 기록에 십일요가 처음 나타나는 시기가 1150년이라는 사실 등을 고려하면 고려 치성광여래도상에서 십일요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시기는 12세기 중반 무렵으로 보는 것이 무난하다.

38) 왕실과 관련하여 소재법회가 행하여졌던 사찰은 광암사·총지사·고봉사·극락사·왕륜사·낙산사·봉선사 등이다. 개성에 있었던 광암사는 조선시대에도 성변에 의한 소재법석이 열리기도 하였다.; 『목은시고』 26권, 詩. “信無及이 병 때문에 奉先寺의 消災殿에 우거하고 있었으므로, …….”



도1-2-〈화요, 월요〉



도1-3-〈금요, 자기, 월파, 일요, 토요, 목요, 리후, 계도, 수요〉



도18-〈십일요불감〉, 1090년,  
대족석굴 169호



도19-〈십일요불감〉, 1090년, 대족석굴 석전산  
10호

었다면 김부식은 1145년 당시 사찰에 있던 12세기 이후의 토요 형태를 염두에 두고 밭삽사의 기사를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 김부식은 왕건이 이룬 역성혁명의 정당성을 미화하고자 토요의 지물인 병향로와 경합을 그와 모습이 유사하면서 천명을 상징하는 손잡이가 달린 거울(柄鏡)<sup>39)</sup>과 도마로 바꿔 기술하였던 것으로 사료된다.<sup>40)</sup>

39) 왕창근은 거울을 사서 벽에 걸어두었다고 하였는데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고리가 달린 懸鏡과 손잡이에 구멍이 뚫린 柄鏡일 가능성이 많다.

40) 정재서, 「거울의 도교적 기능과 그 문학적 수용동서양」, 『도교와 문학 그리고 상상력』 (푸른숲, 2000), 209~239쪽. 고대로부터 거울은 태양과 같은 절대적인 왕의 권위를 상징했기 때문에 환인은 환웅에게 삼부인의 하나로 거울을 신표로 주었으며 백제나 일본에서도 제왕의 신표로 거울이 이용된 예가 있다. 중국 전설에 의하면 거울을 처음 만든 사람은 황제로 주술적인 능력은 古鏡일수록 탁월하다.



도19-1-〈수요와 원숭이〉 도20-〈경천사 십층석탑 3층 탑신석 남서측, 남측, 남동측〉  
문화재청, 『경천사 십층석탑 부자별 상세자료』 인용

일반적으로 회화작품에서 수요의 지필과 금요의 비파는 빠지지 않고 보이는 특징적인 지물이고, 토요는 행렬의 앞에서 무리를 이끄는 형상으로 표현된다. 그리고 화요와 나후, 계도는 14세기까지 괴면의 무장형으로 표현된다. 그러나 고려 치성광여래강림도의 십일요는 각자의 특성을 나타내는 동물장식관은 작용하고 있지만 특색적인 지물과 개성적인 표현 없이 성관(星官)이라는 의미에 걸맞게 십일요 모두가 홀을 지물로 가진 경상형이다(도1-2, 도1-3).<sup>41)</sup>

십일요가 모두 경상형인 도상은 회화작품에서는 그 예가 드물지만 조각작품은 그 예가 있다.<sup>42)</sup> 대죽석굴 169호 불감의 경상형으로 홀판을 가진 십일요는 도1의 십일요와 형태가 유사하다(도18). 대죽 석전산(石篆山) 10굴의 십일요도 무장형의 나후와 계도를 제외한 나머지는 홀판을 가진 경상형이다(도19).<sup>43)</sup> 석전산 석굴의 십일요 사이사이에는 관식(冠飾)으로 표현되던 상징적인 동물이 발치에 작게 표현되었는데 마주 보고 있는 수요와 원숭이의 모습은 경천사 십층석탑 3층 탑신석 남동측의 홀을 든 경상형 인물과 마주 보는 작은 인물의 형상과 그 구도가 유사하다(도19-1, 도20).<sup>44)</sup> 석전산 십일요 불감의 수요상을 참조하여

41) 수요와 금요가 홀판을 지물로 가진 형태는 도9에서 부분적으로 보이지만 武將形의 화요, 나후와 계도의 怪面像은 유지되고 있어 도1과 차이를 보인다.

42) 회화작품에서 음요인 나후와 계도는 일반적으로 갑옷을 입은 무장 형태로 묘사되며 여성형인 월패도 드물게 무장형의 예가 있다.

43) 楊方冰, 「大足石篆山石窟造像補遺」, 『四川文物』(四川省文物考古研究院, 2005년 제01기)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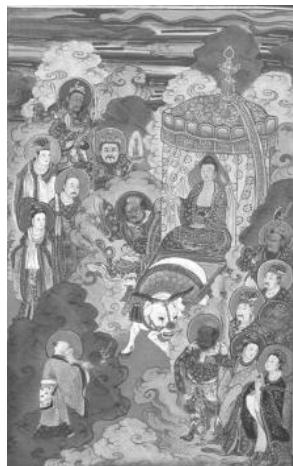
44) 수요와 함께 표현된 원숭이는 12세기 후반 寧夏賀蘭 宏佛塔에서 출토된 치성광여래설법도에서도 보이고, 南宋의 張思恭이 그린 〈辰星圖〉와 같이 단품의 도교회화로 제작될 만큼 대중의 사랑을 받은 도상이다.

이 인물을 수요로 본다면 경천사 십층석탑 3층 탑신석 남서측과 남측, 남동측의 경상 형 11인은 십일요를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고려에서는 자료 ②의 토요와 같이 특징적인 지물을 갖고 있던 구요의 형태가 모두 14세기가 되면 조각뿐만 아니라 회화에서까지 모두 홀을 가진 경상형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각기 별자리가 모여 하늘의 관부를 구성하였다는 믿음과 성관의 의미에 걸맞은 경상을 선호하는 민족성이 십일요 도상에 반영된 것으로 사료된다. 중국에서 전래되어

우리나라에 널리 배포된 『석씨원류응화사적』의 〈설주소재(說呪消災)〉 삽화에 지물을 가진 수요와 금요 및 무장형의 나후와 계도 도상이 등장하는데도 조선시대의 작품에서 채택되지 않는 현상 역시 같은 원인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도21).<sup>45)</sup>

서양 별자리인 황도 십이궁에는 별자리에 따라 방위가 정해져 있지 않지만 동양 별자리인 이십팔수는 별자리에 따라 동서남북이 확연히 구분된다. 천문도에서 이십팔수는 동방 칠수의 각수(角宿)를 시작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북방칠수, 서방칠수를 돌아 남방칠수의 마지막인 진수(軫宿)로 끝난다. 그러나 도1의 이십팔수는 본존 좌측 상방에서 시계 방향으로 동방칠수가 시작되어 북방칠수로 이어진다. 그리고 우측 상방에서 다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서방칠수가 시작되어 남방칠수로 이어져 화면 최하부 중앙에서 남방칠수의 진수와 북방칠수의 벽수(壁宿)가 만나는 독특한 배열형식을 보여준다. 이 같은 이십팔수의 배치는 북방칠수인 두수(斗宿)가 남두육성이 동일한 별자리이기 때문에 화면 상부에 그려져야 되는 북방칠수가 남두육성이 그려진 화면 하부로 배치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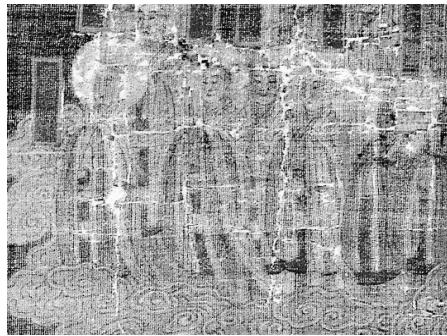


도21-〈설주소재〉, 석씨원류  
옹화사적 1486년, 지본,  
미국국회도서관

45) 최연식, 「朝鮮後期『釋氏源流』의 수용과 佛教界에 미친 영향」, 『보조사상』 11집(보조사상연구원, 1998), 307-316쪽. 1486년에 판각된 『釋氏源流應化事蹟』은 17세기 조선에 수용되어 국내에서 직접 목판을 제작하고 19세기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간행되었다. 따라서 이 책에 그려진 치성광여래강림도상이 조선 후기 치성광여래도상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도1-4-천황대제



도1-5-칠성과 보성과 필성

것이다. 이는 중국식 이십팔수 체계를 수용하되 고구려식 사방위 천문을 기준 삼아 이십팔수를 재배치한 고구려 고분벽화의 별자리체계와도 유사하며, 특히 이십팔수와 함께 그려진 성좌도는 고구려천문도를 바탕으로 제작한 〈천상열차분야지도(1395)〉의 이십팔수 성좌도와 거의 일치 한다.<sup>46)</sup> 따라서 고려 치성광여래강림도는 중국의 모티프를 재해석한 고려 특유의 천문도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

### (3) 천황대제 · 북두칠성 · 남두육성 · 삼태육성

불화인 치성광여래도에 보이는 천황대제와 남두육성, 삼태육성은 신앙이 세속화되며 나타난 도교적 요소들이다. 불교에서 북극성을 의미하는 치성광여래도에 도교에서 북극성을 상징하는 천황대제가 있다는 것은 중복적인 주제의 강조로 볼 수도 있지만 불교적인 차원에서 도교의 성수신앙이 습합되는 과정을 나타내는 예로 해석된다. 치성광여래삼존 다음으로 크게 그려진 천황대제는 북극성을 의미하는 도교의 천신이다 (도1-4).<sup>47)</sup> 고려에서 천황대제는 1115년 처음으로 초제를 지내고 천황당이라는 전당을 따로 건립하여 전쟁의 승리 등을 주로 기원하였던 대표적인 군진(軍陣)의 수호신이다.<sup>48)</sup> 해와 달이 장식된 면류관을 쓴 도1의

46) 김일권, 앞의 책(2008), 133-134쪽; 김현정, 「일본 高麗美術館 소장 1569년작 〈치성광여래강림도〉의 도상해석학적 고찰」, 『文化財』 46권 제2호(국립문화재연구소, 2013), 84쪽. 중국 송대 작품인 도3의 성좌도는 우리 천문도의 별자리와 다른 것이 다수 있다. 고려미술관 소장 치성광여래강림도의 성좌도 우리 천문도의 별자리와 일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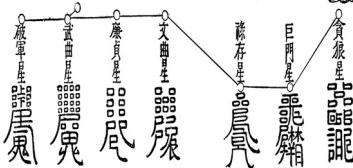
47) 中天紫薇北極太皇大帝와 眞武帝君이라 불리는 玄天上帝 등이 도교에서 북극성신을 의미한다.

48) 『고려사』 卷二十二 「世家」 卷第二十二, 高宗 14年, 10월(한국고전종합DB); 『고려사』

천황대제는 영락궁 삼청전에 그려진 천황대제와 자미대제의 모습과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두 손에 홀판을 쥐고 있는 피발형의 북두칠성 형태는 『북두칠성연명경』의 <북두팔성도>와 송대 <북두구성도>에 그 모습이 보인다(도1-5, 도22, 도23).<sup>49)</sup> 칠성과 관련된 점성형식에는 세 가지 흐름이 있는데, 첫째, 북두칠성, 둘째, 불교경전에 보이는 북두칠성에 보성을 합한 북두팔성, 셋째, 칠성에 보성과 필성을 합한 북두구성으로 도교의 점성학 체계이다. 따라서 도1의 북두구진 형태는 도교적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sup>50)</sup>

도교와 불교의 북두칠성신앙이 유행되기 이전부터 고인돌에 새겨진 북두칠성처럼 이 신앙은 우리나라 고유의 뿌리 깊은 민중신앙이다.<sup>51)</sup> 도교에서도 북두칠성은 초제를 지내는 중요한 별이고 968년 왕사였던 혜거국사가 칠곡 도덕암을 중수하고 칠성암이라 개명하였다 사실 등에서 칠성광여래신앙이 불교의 성수신앙으로 자리매김하기 이전 한민족의 대표적인 성수신앙은 북두칠성과 관련된



도22-『북두칠성연명경』의 북두팔성도



도23-〈북두구성도〉, 남송(12세기),  
견본채색, 12.5×541.0cm,  
자하현 보암사

卷十七 「世家」 卷第十七, 穀宗 6年, 6월(한국사DB).

49) 北極星神인 진무대제(현천상제)와 중국에 점성술을 전래하는 데 영향을 미쳤던 마니교 승려의 형상도 피발형이다. 도교에서 北斗紫光夫人이라고 불리는 마리지천은 斗姥元君과 연관 지어지는데 천황대제와 자미대제, 북두칠성은 모두 두모원군의 아홉 아들이라고 한다. 따라서 진무와 북두칠성의 형상이 유사성을 보이는 것은 이와 같은 연원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50) 김일권, 앞의 책(2007), 375-385쪽.

51) 김만태, 「성수신앙의 일환으로서 북두칠성의 신앙적 화현 양상」, 『동방학지』 159권 0호(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2), 138-149쪽.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sup>52)</sup>

경천사 소재회 도상을 보면 화면 중앙에 본존과 함께 주요 권속으로 그려졌던 구요는 화면 아래 작은 경상형으로 바뀌고, 소형의 군상으로 화면 가장자리에 작게 표현되던 북두칠성은 보성과 필성이 제외된 북두칠성만으로 그 구성이 바뀌어 페발형에 홀판을 쥔 모습으로 치성광여래삼존의 좌우에 배치되어 있다. 도상 배치에서 화면 상단 본존의 좌우에 있다는 것은 그 중요도가 커졌음을 의미함과 동시에 신앙에서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sup>53)</sup> 도상의 구도와 구성이 고려 치성광여래강림도와 거의 흡사한 1569년작 〈치성광여래강림도〉에는 북두구진과 더불어 여래로 표현된 소형의 칠성이 함께 등장하고, 16세기 보주원 소장의 〈치성광칠성도〉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여래로 표현한 칠성을 화면 상부에 크게 그리고 있다(도24, 도25). 따라서 도1의 구성과 비교하여 북두칠성이 강조된 경천사 소재회의 도상 구성은 조선 전기 치성광여래도상의 전개 양상을 예고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아울러 고려 후기 치성광여래 도상의 형식이 신앙에 따라 변화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예이다.



도24- 〈치성광여래강림도〉,  
조선(1569), 미분금니  
84.8×66.1cm, 교토 고려박물관



도25- 〈치성광칠성도〉, 조선(16세기),  
마분채색, 198.0×99.0cm,  
일본 보주원

52) 칠곡 도덕암 중수기; 『復齋先生集下』. 〈祭文〉. 北斗醮祭文; 『동문선』 115권, 〈청사〉, 北斗青詞; 『동국이상국집』 39권, 〈불도소〉, 國卜北斗延命度厄道場文(한국고전종합DB). 김철웅, 「조선초의 道教와 醮禮」, 『한국사상사학』 19(한국사상사학회, 2002), 109-108쪽.

53) 天變과 星變에 따른 消災, 招福을 기원하던 치성광여래신앙의 목적은 戰亂 등의 이유로 인하여 治病, 延壽를 바라는 민중의 요구가 확대되었으며 그 바람이 도상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면서 치성광여래도상에서 生老病死의 길흉과 관련 있는 칠성의 비중이 커지게 되었을 것이다.



도26-〈위덕명왕〉, 1179~1249, 대죽석굴      도1-6-〈부동명왕〉

#### (4) 명왕

소재도량소(消災道場疏)에 묘사된 화염에 휩싸여 철봉 등의 지물을 가진 다비의 분노존은 치성광여래가 교령운신인 명왕으로 변한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치성광여래신앙 의궤에 그 내용이 보인다.<sup>54)</sup> 따라서 분노존의 존재는 법식이 의궤에 따라 정통성을 지키며 설단되었음을 알려주며 아울러 도1에 그려진 분노존 역시 이 그림이 정통을 충실히 반영하여 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불설대위덕소재길상다라니경(佛說大威德消災吉祥陀羅尼經)』, 『불설대위덕금륜불정치성광여래소재일체재난다라니경(佛說大威德金輪佛頂熾盛光如來消災一切災難陀羅尼經)』의 ‘대위덕(大威德)’이라는 단어와 대죽보정대불만(大足寶頂大佛灣) 제9위 대위덕명왕의 “제구대위덕명왕금륜불여래화(第九大威德明王金輪佛如來化)”라고 쓰여 있는 명기, 소재도량소에 나오는 ‘위덕전륜왕’이라는 단어에서 치성광여래는 위덕명왕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도26).<sup>55)</sup> 그런데 특이하게 고려 치성광여래강림도

54) 『동국이상국집』 제18권, 고율시 “왕명에 의해 대장경과 소재도량을 음찬하는 시”; 『동문선』 제110권, 111권 素 〈消災道場疏〉, 〈星變消除疏〉 참조. 『大聖妙吉祥菩薩說除災教令法輪(熾盛光佛頂義軌)』, 『大聖妙吉祥菩薩秘密八字陀羅尼修行曼茶羅次第儀軌法(八字文殊軌)』.

55) 정진희, 앞의 논문(2012b), 379~380쪽; 『동문선』 14권, 석식영암의 소. 치성광법식이 나와 있는 경전에는 畫像을 그릴 때 4대 명왕이 묘사되어 있는데, 여기에 염만덕가(위덕)명왕은 속해 있으나 부동명왕은 없다. 그리고 星曜와 관련된 경전은 문수보살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밀교 삼륜신법에 따라서 위덕명왕이 등장하는 것이

의 명왕은 부동명왕이다(도1-6). 서하의 『성성모중도법사공양전(聖星母中道法事供養典)』에 소개된 치성광법식에는 비로자나불로 변화하는 치성광여래를 관상하는 방법을 설하며 밀교 삼륜신법에 따라 분노존으로 부동명왕을 관련짓고 있다.<sup>56)</sup> 서하와 형제국이었던 요와 고려는 성종연간 점성학에 관한 교류가 있었고, 요대 요동지역의 사찰에는 치성광여래와 더불어 구요와 이십팔수가 사찰의 벽화와 판화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요와의 교섭을 통해 서하의 도상이 전래되었을 가능성도 있다.<sup>57)</sup> 따라서 도1에 보이는 부동명왕은 피발형의 월패 도상과 함께 서하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지만 분노존이 그려진 서하 치성광여래도상의 예가 전무하여 추후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다.<sup>58)</sup>

### 3. 고려 치성광여래강림도상의 성립 시기

고려 치성광여래강림도에 구성요소로 그려진 별들은 모두 도교와 불교의 본명성신앙(本命星信仰)과 관련이 있다. 1046년에 시작된 도교의 본명성초와 불교의 소재도량은 모두 사람이 태어난 해에 해당되는 별에 제사를 지내는 본명성신앙이다.<sup>59)</sup> 소재도량의 소의경전인 『불설대위덕 소재길상다라니경』에는 치성광여래와 구요, 십이궁, 이십팔수가 등장하고 본명성관을 다루고 있는 도경인 『진무경』, 『태상현령북두본명연생묘

---

원칙에는 맞다.

56) H·A 豐歷山 著, 崔紅芬, 文志勇 譯, 「12世紀西夏國的星曜崇拜」, 『固原師專報(社會科學版)』, 제 26권, 제2기, (兰州大学敦煌学研究所, 2005). 27~28쪽. 『聖星母中道法事供養典』에는 치성광여래가 바뀌는 모습과 '브롬'이라고 하는 種字가 화엽으로 바뀌면서 고령운신인 부동명왕으로 변화해 모든 재앙을 소멸하는 형상을 떠올리며 의념을 집중하라는 대목이 있다.

57) 王寂 撰, 『遼東行部志』, “……閣上有熾聖佛壇四壁畫二十八宿皆遼待詔田承制筆田是時最為名手非近世畫工所能及予以九曜壇像設殘缺乃盡……”; 閣文儒·傅振倫·鄭恩淮, 「山西應縣佛宮寺釋迦塔發現的《契丹藏》和遼代刻經」, 『文物』(문화출판사, 1982. 06기); 정은우, 「高麗前期 金銅菩薩像 研究」, 『美術學史學研究』228·229호(한국미술사학회, 2000. 12·2001. 3), 18~23쪽; 김일권, 앞의 논문, 356~357쪽.

58) 경천사 십층석탑 소재희 도상의 다면다비형태의 협시보살은 분노존과 같은 범주에서 해석될 수도 있지만 향좌측 협시보살이 가지는 일월의 지물은 명왕의 지물에서는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 형상을 명왕으로 확정 짓기에는 부족하다.

59) 정진희, 앞의 논문(2013), 337~338쪽; 武田和昭, 앞의 책, 52~53쪽. 소재도량은 원래 왕의 본명성인 북극성에 행하는 치성광법식이었다. 소재도량이 궁궐에서 거의 개소되었던 것을 보면 일반 평민보다는 왕실과 관련이 깊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에 전래된 〈치성광법〉은 중국 천자의 본명성을 공양하는 소재법으로 천황의 安寧을 위해 거행하는 법식이었다.

경(연생경)에는 현천상제(진무대제)와 북두칠성, 남두육성, 삼태성, 이십팔수, 십이궁이 신양의 대상으로 나온다.<sup>60)</sup> 그리고 『북두칠성연명경』에서 북두칠성은 각기 생년 십이간지를 나누어 그해 출생한 이들의 운명을 담당한다.<sup>61)</sup>

아울러 고려시대 무속에서는 하늘의 최고 천신으로 여겼던 제석천과 함께 북두칠성과 구요 등의 별들을 함께 모시고 있었으며, 궂거리에 사용되는 『불설명당신주경(佛說明堂神呪經)』, 『안토지명당경(安土地明堂經)』에는 천황대제와 칠성, 구요, 이십팔수에게 집에 복이 들어오기를 기원하고 있다.<sup>62)</sup>

당시 사찰에는 영성에게 제사를 지내는 성단이 있었고 12세기 전반이 되면 성수전과 복원궁과 같은 영성초제를 지내는 도교 전각이 생겨난다.<sup>63)</sup> 그리고 12세기 중반이 되면 각각의 초제를 지냈던 별들을 모아 함께 의례를 올리고 12세기 말에는 민간에서도 구요와 칠성이 함께 신양되고 있어 당시 소재구복을 위한 성수신양은 종교적인 구분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래 초기 민중의 호응을 얻지 못하였던 치성광여래신양은 도교와 한반도 전통의 영성신앙을 아우르는 세속화 과정을 통해 불교의 대표적인 성수신양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sup>64)</sup> 따라서 위의 사실을 고려하면

60) 『고려사』 卷二十一, 「世家」 卷第二十一, 康宗元年, 1월 기사; 『매월당문집』 권17 참자. 『진무경』과 『연생경』은 소격서 시험교재였을 정도로 대중에게 알려진 도교경전이었고, 『연생경』은 고려에서 연생경도량을 개척할 만큼 호응을 얻고 있었다. 특히 『연생경』에 凡人の性命은 본명성관이 주관하여 다스리는 것으로 본명신장과 본명성관은 사람에게 險祐를 내리고 天命을 보전하게 한다.

고려에서老人星은 전국에老人星壇까지 지어 모시는 주요한 성수임에도 불구하고 치성광여래도상에 보이지 않는 이유는 본명신양에서 다루는 별이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이후 조선시대 치성광여래도상에는 노인성이 습합되어 나타나는 현상을 보인다.

61) 서경전, 「대장경과 도경에 나타난 칠성경의 비교고찰」, 『원광대학교논문집』 Vol. 16, No. 1(원광대학교, 1982) 참조. 『태상현령북두본명연생묘경』과 내용이 대동소이하다.

62) 『동국이상국전집』 2권, 고율시, 〈老巫篇〉. “…… 信口自道天帝釋, 釋皇本在六天上, 肯入汝屋處荒僻, 丹青滿壁畫神像, 七元九曜以標額, 星官本在九霄中……”; 김일권, 앞의 책(2007), 341-342쪽. 고려인들에게 제석은 하늘의 불교적 최고 천신으로 무속에 그려진 천제석은 하늘의 일월성신을 주재하는 최고신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홍제전서』, 117권, 경사강의 54, 강목 8. 불교경전명과 도교 성신 등을 인용하고 있으나 도불의 경전은 아니며 안택에서 地神과 가정 수호신을 축원하는 자리에서 두루 이용되고 있다.

63) 황해도 文化縣의 四王寺에는 오래된 星蘸祭壇이 있다(『신증동국여지승람』 권42. 佛宇). “…… 僧殘寺古路高低 祭星壇畔春風早……”(『東文選』 22권, 竹長寺 참조)(한국고전종합DB).

도1과 같이 종교의 구분이 없는 교집합적인 도상의 성립 시기는 도교와 불교에서 각각 별도로 신앙되었던 별들이 함께 초례되고 무속에서도 칠원구요가 함께 신앙되었던 13세기 즈음으로 추측된다.<sup>65)</sup>

#### IV. 맷음말

인도에서 시작된 구요신앙은 중국으로 전래되어 치성광여래신앙으로 변모하였다. 그리고 고려로 전래된 치성광여래신앙은 고려 전통 성수신앙과 도교 성수신앙과 습합되는 세속화 과정을 통해 고려 특유의 불교천문도를 창출하였다. 보스턴 미술관에 소장된 고려 치성광여래강림도는 이와 같은 독창적인 고려 성수신앙의 성격을 유려한 필치로 잘 그려낸 작품이다.

중국의 치성광여래도상에서 보이지 않는 분노명왕과 사라져가는 이십 팔수와 십이궁을 고려 치성광여래강림도에서 정확히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이 작품이 의궤에 따라 정통성을 지키며 제작된 것임을 알려준다. 그리고 우리 전통 천문사상에 근간을 둔 북극삼성을 의미하는 협시보살과 정확한 성좌도와 함께 이십팔수가 화면 가장자리에 배치된 구도는 중국의 모티프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주체적인 선택을 하여 재해석한 특징적인 요소이다.

고려 치성광여래강림도에 그려진 별들은 도불의 본명성신앙과 관련이 있으며 고려의 전통 무속신앙에서도 신앙되던 영성들이다. 따라서 모든 별을 화면에 그려 넣은 고려 치성광여래강림도는 불교적인 테두리 속에 도교 성수신앙과 고려의 전통 영성신앙까지 한데 아우르는 교집합적인 모습을 화면에 표현한 것이다. 12세기 중반 이후 본명성 관련 별들을 함께 초제 지내고 무속에서도 구요와 칠성을 함께 모셨던 현상으로

64) 정진희, 앞의 논문(2013), 327쪽. 치성광여래신앙과 도교 영성신앙은 세속화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종교적인 구분은 의미가 없게 되었고, 포괄적인 개념에서 성수신앙 목적은 하늘의 灵星에게 延命救厄과 祈福을 염원하는 것으로 변모하였다. 따라서 사찰에서도 도교의 성수초제를 거행하고 있다.

65) 『고려사』 卷十三 「世家」 卷第十三, 睿宗 5年, 1월 “甲子 親醮于星宿殿。”(한국사DB). 본명성과 관련된 탄생일에 초제를 복원궁에서 올린다. 제115권, 靑詞. “福源宮行誕日醮禮文.”

미루어 보스턴 소장 치성광여래강림도와 같은 도상은 13세기를 즈음하여 성립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고려 후기 이후 치성광여래도상은 북두칠성을 중시하는 우리나라 전통 영성신앙의 영향을 받아 북두칠성의 존재는 도상에서 점차 부각되어 16세기가 되면 칠성이 여래로 변화한 작품도 등장한다. 그리고 치성광여래신앙으로 노인성신앙이 습합되면서 조선 후기에는 치성광여래도상에 노인성이 그려지는 도상적 변화를 보이며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 참 고 문 헌

『고려도경』, 『고려사』, 『大正藏』, 『동국이상국집』, 『동문선』, 『佛說大威德金輪佛頂熾盛光如來消災一切災難陀羅尼經』, 『四庫全書』, 『삼국사기』, 『宋史』, 『宿曜儀軌』, 『遼東行部志』, 『용재총화』, 『조선왕조실록』, 『海東繹史』.

郭若虛 저, 박은화 역, 『도화견문지』. 시공아트, 2005.

김만태, 「성수신양의 일환으로서 북두칠성의 신양적 화현 양상」. 『동방학지』 159권,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2.

김일권, 「불교의 북극성 신양과 그 역사적 전개-백제의 북진묘견과 고려의 치성광불 신양을 중심으로-」. 『불교연구』 18집, 동국대학교 한국불교연구원, 2002.

\_\_\_\_\_, 「고려 치성광불화의 도상 분석과 도불교섭적 천문사상연구-고려전본 「치성 광여래왕립도」와 선조 2년작 「치성광불제성강립도」를 중심으로-」. 『천태학연구』, 원각불교사상연구원, 2003.

\_\_\_\_\_, 『동양천문사상-하늘의 역사』. 예문서원, 2007.

\_\_\_\_\_, 『고구려 별자리와 신화』. 사계절, 2008.

김철웅, 「조선 초의 道教와 酔禮」. 『한국사상사학』 19, 한국사상사학회, 2002.

김현정, 「일본 高麗美術館 소장 1569년 작 〈치성광여래강립도〉의 도상해석학적 고찰」. 『文化財』 46권 제2호, 2013.

문명대, 「경천사 10층석탑 16불회도 부조상 연구」. 『강좌미술사』 22집, 한국불교미술학회, 2004.

\_\_\_\_\_, 「경천사 십층석탑 16불회도 연구」. 『경천사 십층석탑-II. 연구논문』, 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박도화, 「高麗佛畫와 西夏佛畫의 圖像的 관련성-阿彌陀三尊來迎圖와 慈悲道場懺法變相圖를 중심으로」. 『古文化』 第52輯, 한국 대학박물관협회, 1998. 12.

서경전, 「대장경과 도경에 나타난 칠성경의 비교고찰」. 『원광대학교논문집』 Vol. 16, No. 1, 원광대학교, 1982.

임수빈 · 김성남, 「불화로 살펴본 조선시대 거두미의 시원에 관한 고찰」. 『한미용예술학회지』 Vol. 7, No.3 통권 20호, 한국미용예술학회, 2013.

정은우, 「高麗前期 金銅菩薩像 研究」. 『美術史學研究』 228 · 229호, 한국미술사학회, 2000. 12 · 2001. 3.

\_\_\_\_\_, 「경천사지 10층석탑과 삼세불회고」. 『고려 후기 불교조각 연구』, 2004.

정재서, 「거울의 도교적 기능과 그 문학적 수용동서양」. 『도교와 문학 그리고 상상력』, 푸른숲, 2000.

정진희, 「中國 불교의 九曜圖像 연구-당 · 송대 치성광여래도상을 중심으로」.

『CHINA 연구』 제8집, 부산대학교 중국연구소, 2010년 2월.

- \_\_\_\_\_, 「중국 치성광여래 도상고찰 1-신앙의 성립과 전개에 관하여」. 『인문학연구』 제13집 1호, 2012a. 6.
- \_\_\_\_\_, 「중국 치성광여래 도상고찰 II-도상의 성립과 시대적 변천에 관하여」. 『불교학보』 제63집,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2012b. 12.
- \_\_\_\_\_, 「고려 치성광여래신양 고찰」. 『정신문화연구』 제132집, 한국학중앙연구원, 2013. 9.
- 최성은, 「나말려초 중부지역 석불조각에 대한 고찰-궁예 태봉(901-918)지역 미술에 대한 시고-」. 『역사와 현실』 제44호, 한국역사연구회, 2002. 6.
- \_\_\_\_\_, 「高麗時代 護持佛 摩利支天像에 대한 고찰」. 『佛教研究』 29호, 한국불교연구원, 2008.
- 최연식, 「朝鮮後期 『釋氏源流』의 수용과 佛教界에 미친 영향」. 『보조사상』 11집, 보조사상연구원, 1998.
- 武田和昭, 『星曼茶羅の研究』. 法藏館, 2005.
- 蘇 佳瑩, 「日本における熾盛光仏図像の考察」. 『美術史論集』 11, 2012.
- 有賀 匠, 「星曼茶羅と妙見菩薩の図像学的研究」. 『密教文化』 204, 密教研究会, 2004.
- 楊方水, 「大足石篆山石窟造像補遺」. 『四川文物』, 四川省文物考古研究院, 2005년 제[01기].
- H · A 豈歷山 著, 崔紅芬 · 文志勇 泽, 「12世紀西夏國의星曜崇拜」. 『固原师专报(社會科學版)』 제26권, 제2기, 蘭州大学敦煌学研究所, 2005.
- 閻文儒 · 傅振倫 · 鄭恩淮, 「山西應縣佛宮寺釋迦塔發現的《契丹藏》和遼代刻經」. 『文物』, 1982. 06기.
- 廖陽, 「熾盛光佛构圖中星曜的演變」. 『돈황연구』 No. 4, 돈황연구원, 2004.
- 鈕衛星, 「唐宋之際道教十一曜星神崇拜的起源和流行」. 『世界宗教研究』, 科学史與科学文化研究院, 2012.

<http://db.itkc.or.kr>. <http://db.history.go.kr>. <http://kb.sutra.re.kr>.

## 국 문 요 약

보스턴 미술관에 소장된 고려 치성광여래강림도는 현재 유일한 고려시대 치성광여래 회화로 9세기 후반에서 10세기 전반 고려로 전래된 불교 치성광여래신앙이 세속화 과정을 통해 고려 전통 성수신앙과 도교 성수신앙을 수용하여 새롭게 창출시킨 고려 특유의 불교천문도라 할 수 있다.

이십팔수가 가장자리로 배치된 고식(古式)의 구도와 의궤(儀軌)에 등장하는 분노존을 표현한 명왕 등은 이 작품이 치성광법식의 정통적인 규범에 따라 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왕실 소재법회의 성격과도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고구려의 전통을 따라 이십팔수를 배치한 구도와 북극 삼성(三星)을 의미하는 협시보살, 중국의 치성광여래도상에는 없는 북두칠성과 남두육성, 삼태육성, 천황대제 등의 도상요소는 중국의 모티프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주체적인 선택을 하여 재해석한 특징적인 모티프들이다.

고려 치성광여래강림도에 그려진 별들은 모두 도불(道佛)의 본명성신 양과 관련이 있으며, 고려 무속에서도 신앙되던 영성(靈星)들이다. 따라서 이 모든 별을 화면에 그려 넣은 고려 치성광여래강림도는 불교적인 테두리 속에 도교 성수신앙과 고려의 전통 영성신앙까지 한데 아우르는 교집합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형태의 고려 치성광여래도상은 13세기를 즈음하여 성립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며 북두칠성을 중시하는 우리나라 영성신앙의 영향으로 도상에서 북두칠성의 존재가 부각되는 변화과정을 거쳐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투고일** 2014. 9. 24.

**심사일** 2014. 10. 30.

**개재 확정일** 2014. 11. 26.

**주제어(keyword)** 고려(Koryo), 치성광여래강림도(The Descent of Tejaprabha Buddha), 구요(navagraha), 이십팔수(twenty-eight mansion), 북두칠성(the great bear), 천황대제(god of sky), 명왕(the knowledge-king of anger looks)

## Abstracts

### A Study on the Descent of Tejaprabha Buddha in Museum of FineArt, Boston Jung, Jin-hee

The Descent of Tejaprabha Buddha housed in Museum of Fine Arts, Boston is considered one and only painting of Tejaprabha Buddha that has been inherited ever since the Koryo Dynasty. As the special Buddha astronomical chart of Koryo Dynasty, the work had accepted but also newly created both the Koryo's traditional spiritual faith and this other spiritual faith of Taoism when the tejaprabha Buddha faith, first introduced and spread throughout Koryo Dynasty from the late 9th century to the early 10th century, was becoming popular among the public.

The old composition with the twenty-eight mansion placed around the edge and the knowledge-king of anger looks that expresses the rage configuration observed in the ceremony text are the evidences that shows, this work was designed based on the conventional rules and regulations of the tejaprabha Buddhist ritual, and that apparently agrees to these general ideas of the royal ceremony of a Buddhist mass for clean the disaster. However, all those elements of iconography such as the composition that had placed the twenty-eight mansion based on the tradition of Goguryeo, an adviser Bodhisattva that represents North Pole three-star, and the great bear, canopus, the Big Dipper, god of sky and others that are never found in the iconography of Tejaprabha Buddha of China are only the distinctive motifs which Korea personally had chosen and re-interpreted when they were accepting the motifs from China.

All the stars painted in The Descent of Tejaprabha Buddha of Koryo Dynasty are determined to be related to the faith of birth year star believed by Buddhism-Taoism, and they are these miracle stars that had been religiously emphasized even by the folk faith of Koryo Dynasty. In the light of that, the study believes that The Descent of Tejaprabha Buddha of Koryo Dynasty which had painted all those stars mentioned above simply in one screen has been dealing with not only the spiritual faith of Taoism but also the traditional Koryo miracle stars faith within this one Buddhist frame. It is assumed that the iconography of Tejaprabha Buddha of Koryo with those styles described above applied was created in the mid-12th century. In addition, how the Korean miracle stars faith puts the great significance on the great bear did have an effect on the great bear's being magnified in the iconography Tejaprabha Buddha, and this particular change has been still inherited from the past to the present.